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시즌 1·2 임팩트 리포트

시즌 1 2021. 1 ~ 2024. 12

시즌 2 2021. 9 ~ 2025. 8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시즌 1·2 임팩트 리포트는

P.5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은
펠로우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P.6

펠로우들의 활동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P.7

펠로우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의 지원이 펠로우들의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영향에 힘입어 펠로우들의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리하여 펠로우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파악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임팩트를 조명합니다

시즌 1·2 펠로우 대상
1:1 심층 인터뷰 진행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의 핵심 임팩트 및
임팩트 논리 모델 도출

펠로우별 활동 영역·조직 형태 등을
고려한 정량적 성과 지표
설계 및 데이터 취합

데이터 종합 분석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시즌 1·2의 임팩트 도출

사업 목적

사회혁신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활동에 몰입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회혁신가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이 정의하는
'사회혁신가'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명확한 사람
-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 작은 성공일지라도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
-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시드머니 : 활동비 지원

펠로우가 사회혁신 활동에 몰입
할 수 있도록 2년(최장 4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 지원

*최초 지원기간 2년 후 심사를 거쳐 2년 연장

확성기 : 홍보 지원

펠로우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에 알려져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카카오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브릿지 : 전문가 연계

펠로우와 활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계
법률 자문·브랜딩·
심리상담 등 지원

펠로우 네트워크

펠로우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펠로우 커넥트데이(연1회)와
자율적인 교류 활동비 지원

전체 펠로우 수
(2025 기준)

56명

사업 시작연도

2021~

- 시즌1(2021.1~2024.12) : 11명
- 시즌2(2021.9~2025.8) : 13명
- 시즌3(2022.9~2026.8) : 15명
- 시즌4(2023.12~2027.11) : 12명
- 시즌5(2024.11~2028.10) : 5명

확성기 지원 연계로 진행된 시즌 1, 2 펠로우의
펀딩 프로젝트 모금 총액*

4,308만 원

*펠로우 5명의 같이가치 모금액 총합

시즌 1, 2 펠로우에게 지원된 시드머니 총액*

30억 5,600만 원

*2021~2022.6. 월 200만 원 지원, 이후 300만 원으로 상향

시즌 1 펠로우

* 펠로우의 이름을 클릭하면 인터뷰 아티클로 연결됩니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정다운

보틀팩토리 대표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정정운

핸드스피크 대표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홍윤희

무의 이사장

유명상

협동조합 청풍 이사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연구활동가

최서희

리셋 대표

시즌 2 펠로우

* 펠로우의 이름을 클릭하면 인터뷰 아티클로 연결됩니다

박은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

이길보라

코다코리아 대표·영화감독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김동훈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김미연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부대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활동가

김윤지

비투비 대표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서동은

리플라 대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지연

뜻밖의상담소 공동대표

이우수(이혜림)

생태전환마을 내일 활동가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시즌 1 2021. 1 ~ 2024. 12

시즌 2 2021. 9 ~ 2025. 8

펠로우 선정 » 보람·자긍심

시드머니 » 안정감

확성기 » 사회적 인지도

펠로우 네트워크 » 사회혁신 동료

브릿지 » 조직 역량

펠로우 사업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하며



활동의 기반인
조직을 성장시켜

평균 **2.1배**

조직 구성원 증가

영리조직 평균

3.3배

비영리조직 평균

2.1배

연간 수익 증가

솔루션을 확산하고, 새로운 사회혁신 섹터를 개척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확산

6.5배

더 많은 사람에게
프로덕트·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비영리조직역량

자원순환

AI교육

관계인구

청소년창업

니트청년자립

한부모자립

사각지대 이슈의
섹터 개척

더 많은 사람의
사회혁신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네트워크·
유통망 구축과 확장

제로웨이스트소비

농인예술

청년정치인

재난사회복지

연구·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더 많은 사람의
권리 증진을 위한

6건의

법안·공공정책 개선

장애인이동권

디지털성범죄

기후위기

미등록이주아동

해양동물보호구역

사회혁신 활동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성취감,
시드머니와 펠로우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안정감은
펠로우들이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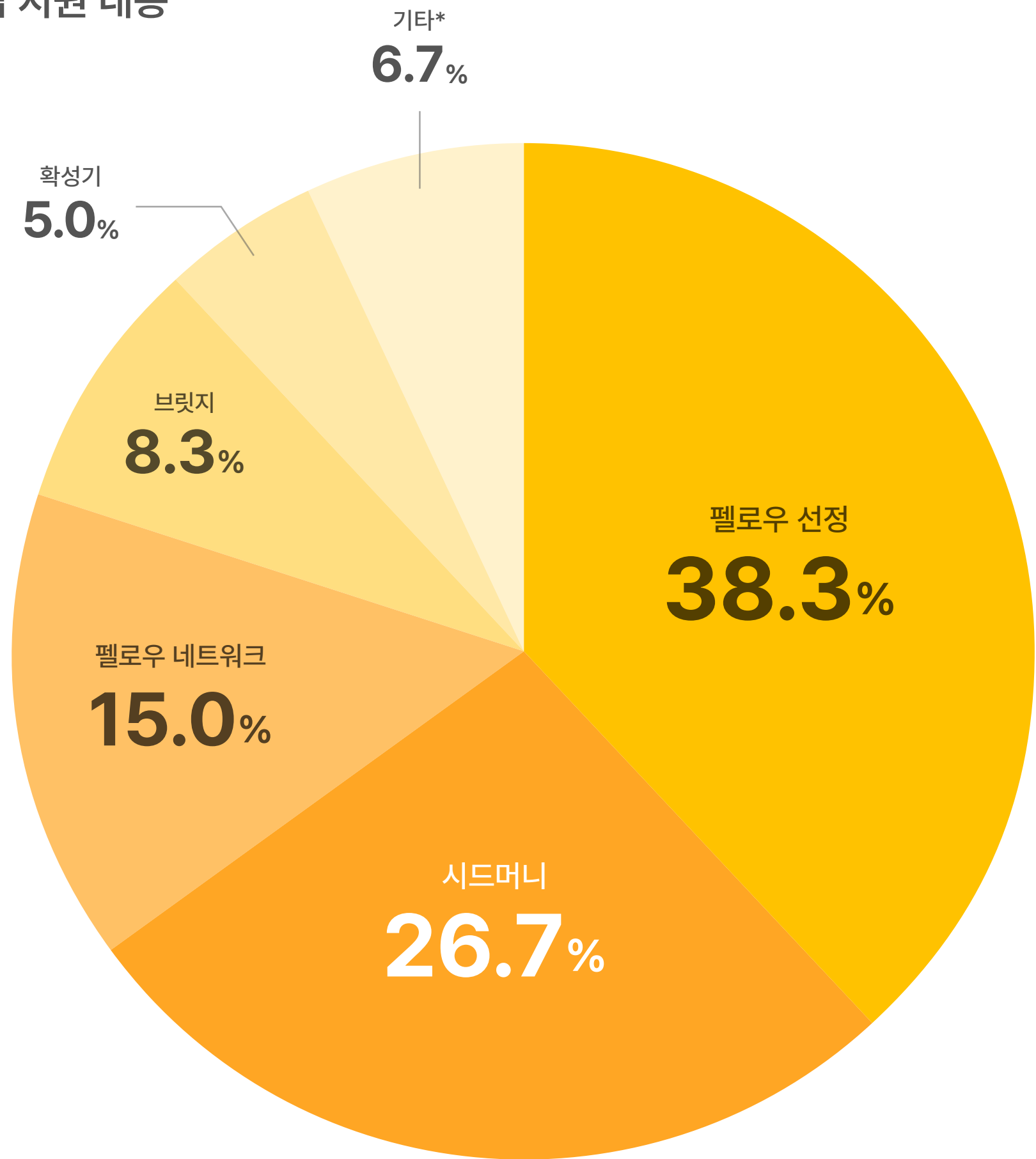
시즌 1·2 펠로우 중
2025년 현재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펠로우 비율

95.8%

분석 개요

- 본 분석은 시즌 1, 2 펠로우 24명을 대상을 진행한 1:1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됐습니다
- 인터뷰는 펠로우 지원 기간 동안 경험한 주요 위기와 성취 사례를 중심으로 회고한 후, 그러한 과정에서 펠로우십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에서 펠로우들이 사회혁신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펠로우 사업 지원(효과)으로 언급(반복 제외)한 내용을 정리해 ▲시드머니 ▲확성기 ▲브릿지 ▲펠로우 네트워크 등 펠로우 사업의 세부 지원 항목 4가지와 ▲펠로우 선정을 더한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총 60건의 코멘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펠로우들의 사회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지원 내용



펠로우 24명 인터뷰에서 추출한 관련 코멘트 60건 분석
*기타 : 테크포임팩트(3건), 헤이그라운드 입주 할인 혜택(1건)

펠로우 선정	“펠로우로 선정돼 ‘헛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시즌 1 펠로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맞아, 네가 하는 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 – 김지연 뜻밖의 상담소 공동대표, 시즌 2 펠로우 “브라이언 펠로우로 추천 받고, 인터뷰를 하고, 펠로우로 선정돼 활동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우리의 활동을 세상을 바꿀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는구나’ 하고 느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시즌 2 펠로우
시드머니	“1년 동안 시드머니로 매달 10개 비영리조직에 무료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했다. 사회환원 목적이었는데, 덕분에 서비스도 많이 알려졌고, 컨설팅 받은 조직의 48%가 유료 고객으로 전환됐다.” –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시즌 1 펠로우 “후원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프로젝트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시드머니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줬다는 게 시드머니의 가장 큰 장점이다.” – 최서희 리셋 대표, 시즌 1 펠로우 “다니던 회사가 국내 대기업에 합병되면서 회사 일과 무의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펠로우십을 믿고서 과감히 퇴사하고 전업 활동가로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 홍윤희 무의 이사장, 시즌 1 펠로우
펠로우 네트워크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서 용기를 얻었다. 덕분에 내 생각을 말하거나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서동은 리플라 대표, 시즌 2 펠로우 “강릉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재난대응 전문가인 김동훈 펠로우가 현장에 오셔서 큰 도움을 줬다. 다른 펠로우와 연결돼 우리 지역 문제에 함께 대응했다는 게 보람 찼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 이우수 생태전환마을 내일 활동가, 시즌 2 펠로우
확성기·브릿지	“카카오페이지, 브런치에 유스보이스가 소개됐고 닷페이스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졌다. 덕분에 ‘유스보이스란 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연락해오는 곳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다.” –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시즌 1 펠로우 “같이가치 플랫폼에서 코다국제컨퍼런스 개최비용을 마련하는 모금함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브랜딩을 비롯해 코다코리아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이길보라 코다코리아 대표, 시즌 2 펠로우

펠로우 선정 이후,
펠로우들은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혁신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조직을 성장시켜왔습니다

시즌 1·2 펠로우 23명의 조직 형태(선정 당시 기준)

영리	비영리
10명*	13명
43.5%	56.5%

*1명은 2023년 비영리로 전환

시즌 1·2 펠로우 23명의 조직 내 역할(선정 당시 기준)

설립자·대표*	대표 취임	기타
17명	2명	4명
73.9%	8.7%	17.4%

*1명은 2023년 대표직 이임

분석 개요

- 본 분석은 시즌 1, 2 펠로우 24명 중 펠로우 선정 후 현재까지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23명을 대상으로 활동의 성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이터를 취합해 이를 토대로 도출했습니다

언론 보도량

펠로우
선정 전 4년간

1,377건

→

펠로우
선정 후 4년간

3,152건

펠로우 선정 후부터 2025년 현재
펠로우 23명과 관련된 언론 보도량은 총 3,152건으로,
펠로우 선정 전(1,377건) 대비 약 2.3배 증가

수상·표창

23건

- 사회공헌·공익 분야 : 13건
- 환경 분야 : 4건
- 인권 분야 : 1건
- 기술혁신 분야 : 5건

펠로우 23명 중 13명(56.5%)이 사회혁신 공로로
공공·민간 기관으로부터 상·표창 23건을 받음

- * 분석 방식 : 펠로우 23명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펠로우 선정 후 개인 또는 대표직을 맡은 조직의 수상·표창 내역을 수집해 분석했음
- * 분석에 포함된 펠로우 수 : 23명 전원

| 사례 | 김동훈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시즌 2)

-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대응민관협력 유공)
- ❖ 조선일보 '만해대상 실천대상'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가치대상 우수상'
- ❖ 한국서부발전 '대한민국체인지메이커상'

| 사례 |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시즌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정보문화 유공)
- ❖ 아시아필란트로피어워드 '올해의 펀드레이저상'
- ❖ 한국서부발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상'

펠로우십의 대외적 공인 효과가 크다고 느낀다. 공인된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면 다른 기회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펠로우 선정 후 상을 받게 된 것도 펠로우십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시즌 1 펠로우

조직 규모

2.1배

펠로우들이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원 수는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평균 2.1배 증가

- * 분석 방식 : 펠로우가 활동하는 조직의 2020년도(펠로우 선정 전)와 2024년도(선정 후 현재) 연간 수익을 집계해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별로 증가 규모를 분석했으며, 조직 형태별 '연간 수익'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 * 분석에 포함된 펠로우 수 : 영리 9명 + 비영리 10명 = 19명(데이터 미제공 펠로우 4명 제외)
- 영리 조직 : 매출액, 지원사업비
- 비영리 조직 : 후원금, 용역사업비, 지원사업비

| 사례 |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시즌 1)

2명 → 17명 사무국 구성원 8.5배 증가

3명 → 60명 소속 농인 아티스트 20배 증가

| 사례 |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 (시즌 2)

2명 → 8명 사무국 구성원 4배 증가

4명 니트생활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니트청년 당사자 채용 수

연간 수익

영리

3.3배

비영리

2.1배

펠로우들이 활동하는 영리 조직의 연간 수익은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평균 3.3배 증가

- * 분석 방식 : 펠로우가 활동하는 조직의 2020년도(펠로우 선정 전)와 2024년도(선정 후 현재) 연간 수익을 집계해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별로 증가 규모를 분석했으며, 조직 형태별 '연간 수익'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펠로우들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의 연간 수익은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평균 2.1배 증가

- * 분석에 포함된 펠로우 수 : 영리 9명 + 비영리 10명 = 19명(데이터 미제공 펠로우 4명 제외)
- 영리 조직 : 매출액, 지원사업비
- 비영리 조직 : 후원금, 용역사업비, 지원사업비

| 사례 |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시즌 1)

1.9억 원 → 7억 9,600만 원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알맹상점 연간 수익

| 사례 |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 (시즌 2)

1.5억 원 → 5억 9,500만 원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니트생활자 연간 수익

| 사례 |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시즌 1)

14.6억 원 → 57억 6,500만 원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모두의 연구소 연간 수익

| 사례 |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시즌 2)

6.7배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뉴웨이즈 연간 수익 증가 규모

*구체적 수치 비공개

- * 분석 방식 :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전국 발행 종합일간지, 방송사, 지역신문, 인터넷 신문 등 총 104개 매체의 뉴스 데이터에서 펠로우 23명 관련 보도량을 아래와 같이 집계·분석했음

* 분석에 포함된 펠로우 수 : 23명 전원

- 시즌 1 펠로우(10명) : 펠로우 선정 전 4년간(2017.1~2020.12) 보도량 대비 선정 후 현재(2021.1~2025.5, 4년 5개월)까지의 보도량 비교
- 시즌 2 펠로우(13명) : 펠로우 선정 전 4년간(2017.9~2021.8) 보도량 대비 선정 후 현재(2021.9~2025.5, 3년 9개월)까지의 보도량 비교

| 사례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시즌 1)

19건

↓

165건

변재원 펠로우와 관련된 언론 보도량은 펠로우 선정 후 8.7배 증가했으며, 펠로우 선정 후 경향신문 필진이 되어 정기적으로 칼럼(44건)을 게재함

사회혁신 활동 기반을 다지며 성장해온 펠로우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솔루션을 확산**하고,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새로운 섹터**를 개척하고,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 성과 기준으로 분석한
시즌 1·2 펠로우 23명의 활동 유형

솔루션 확산	섹터 개척	제도 개선
8명 34.8%	5명 21.7%	10명 43.5%

솔루션 확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서비스·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확산

섹터 개척

낮은 사회적 관심과 시장성 등으로 솔루션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사회 문제 영역에 주목해 다양한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네트워크, 시스템 등 기반을 구축

제도 개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

6.5배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펠로우들이 보급한
솔루션 이용자 증가 규모

2곳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시즌 1)

핸드스피크의 중국 진출을 계기로 신규 설립 예정인
농인 아티스트 에이전시 법인 수

6건

펠로우들의 실태 연구, 캠페인 활동이 영향을 미쳐 개정·제정됐거나
개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정책 수 (2025. 5 기준)

※ 분석 방식 : 펠로우별 솔루션 특성에 따라 ▲연간 이용자 수 집계 가능한 경우와 ▲누적 이용자 수 집계 가능한 경우로 나뉘므로 ,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의 연간/누적 이용자 증가 규모(배)를 계산한 후 그 값의 평균을 도출했음
※ 분석에 포함된 펠로우 수 : 6명(데이터 미제공 펠로우 2명 제외)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시즌 1)

18.1배

모두의연구소의 IT교육
연간 수강생 수는
49명 → 889명으로 18.1배 증가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시즌 1)

4.1배

누구나데이터의 디지털마케팅 솔루션
연간 이용 조직 수는
145곳 → 598곳으로 4.1배 증가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시즌 1)

6.1배

유스보이스의 '나다움 찾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누적 수는
182명 → 1,110명으로 6.1배 증가

김윤지 비투비 대표 (시즌 2)

4.4배

비투비의 한부모가정 통합지원
플랫폼 '폼' 누적 회원 수는
1,050명 → 4,627명으로 4.4배 증가

김지연 뜻밖의 상담소 공동대표 (시즌 2)

5.1배

뜻밖의 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비영리 활동가 누적 수는
104명 → 527명으로 5.1배 증가

박은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 (시즌 2)

3배

니트생활자의 자립지원
커뮤니티에 참여한 니트청년 누적 수는
521명 → 1,584명으로 3배 증가

3건

김동훈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시즌 2)

더프라이스가 국내 재난 구호 현장에 최초로 도입한
노인전용 쉼터 등 취약계층 특화형 보호소 모델 수

40명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시즌 2)

뉴웨이즈가 배출한
청년 지역의원 수 (2025. 5 기준)

200곳 이상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시즌 1)

알맹상점이 구축한
전국 제로웨이스트숍 네트워크 가입 매장 수

정다운 보틀팩토리 대표 (시즌 1)

228곳

보틀팩토리가 주최하는 제로웨이스트
로컬 마켓 참여 업체 누적 수 (2019~2024)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시즌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전국 시내버스 노선의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022 34.0% → 2024 44.2%

전국 시내버스 노선
저상버스 도입률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시즌 2)

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국내 출생·장기 체류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권 부여

1,205명

구제대책으로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이주아동 수
(2021.4. ~2025.2)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시즌 2)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 판결

청기행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주문

홍윤희 무의 이사장 (시즌 1)

「서울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 명시

44.2%

무의의 '모두의 1층 성수' 캠페인 이후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매장 수
(2024. 12. 기준)

김미연·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공동대표 (시즌 2)

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전용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추자면
관탈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2.36km²

남방큰돌고래 전용
해양보호구역 면적

최서희 리셋 대표 (시즌 1)

법정부 TF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사 확대·처벌 강화



시즌 1 펠로우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펠로우로 선정돼 '잘하고 있다'고
인정 받은 기분이었고,
덕분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탐다운·강의 중심 일방향 교육이 아닌 지식 공유 커뮤니티
기반의 연구·학습 모델을 꿈꾸며 2015년 모두의연구소 설립

AI 교육의 장벽을 낮추고자 2020년 무료로 AI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AI 혁신학교 아이펠(AIFFEL) 개소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모두의연구소 구성원 수

24명 → 73명

모두의연구소 교육생들이
국제 학회·저널에 발표한 AI 연구논문 누적 수
(2025.7 기준)

100편

- 오프라인 캠퍼스 중심으로 구상했던 아이펠 운영 모델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
- 2022년 7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 2022년 기업용(B2B) AI 교육 솔루션 론칭
- 계명대, 한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
국내 대학 5곳과 인재양성 협약 체결
- 2023년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기관 최초로
직업훈련기관 대표 부문 대통령 표창
- 2025년 현재 카카오임팩트재단 이사,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AI미래포럼 대표의장 역임



시즌 1 펠로우

서동은 리플라 대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주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른 펠로우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길이 맞는지 확신도 없고
동기부여도 잘 안됐을 것 같다.

고교 시절부터 연구해온 미생물의 분해력으로 불순물을
제거해 재활용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2019년 리플라 설립해 재활용공장을 핵심 타겟으로 한 제품
개발 본격화

2020년 2억5,000만 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펠로우 선정 후
국내외 출원 특허 건수

8건

펠로우 선정 후 유치한 투자금
(2021.9~2025. 5 기준)

118억 원

- 2022년 38억 원 규모의 프리A 투자 유치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핀란드, 스페인, 독일 등 해외
스타트업·친환경 기술 박람회에 참여해 유럽 지역
재활용업체 70여 곳과 네트워크 구축
- 2023년 폴리프로필렌(PP) 순도를 100%로 높이는
페플라스틱 처리 솔루션(바이오탱크)의 상용화를 위한 제품
인증 완료
- 202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Innovation
Award에서 Human Security for All, Sustainability,
Eco-design&Smart Energy 등 2개 부문 수상
- 2024년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시즌 1 펠로우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펠로우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면
알맹상점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지 못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로
막을 내렸을 것이다.

2007년부터 12년간 여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일했으며,
퇴사 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캠페인 운영

2020년 동료 활동가 2명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에
국내 첫 제로웨이스트숍(무포장 리필 전용 생활용품점)인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이하 알맹상점)' 공동 창업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연간 알맹상점 매장 이용 고객 수

750명 → 1,390명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알맹상점에서 취급하는 무포장 판매 품목 수

70종 → 230종

- '활동가' 외에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을 알맹상점 매니저로 채용(누적 9명)
- 시드머니 일부(월 100만 원)를 '소셜미디어 콘텐츠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해 매니저들이 제로웨이스트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며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
- 2022년 서울역 4층 옥상정원에 알맹상점 2호점('알맹상점 리스테이션') 개점(2024년 임대계약 만료로 폐점)
- 2022년 전국 제로웨이스트숍 연합인 도모도모 네트워크 구축
- 공동구매 형식으로 생산업체와 무포장 도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제로웨이스트숍 판매 품목 확대
- 2024년 망원시장 내 수리·수선 공방 '수리상점 곰손' 개점



시즌 1 펠로우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1명분의 인건비가
정기적·장기적으로 지원돼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50대 이상 남성 중심의 국내 정치계에 '젊어인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이 유입·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청년 정치인과 건강한 유권자를 육성·지원하는 정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 설립(비영리임의단체)

뉴웨이즈 메이트 회원 수
(2025. 5 기준)

1,931명

뉴웨이즈 피드 구독자 수
(2025. 5 기준)

3,948명

-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38명, 당선자 40명* 배출 *만 39세 이하 당선자 416명의 약 10%
- 뉴웨이즈의 장기적 운영 방향·계획을 구상하며 2022년 10월 사단법인 전환
- 2023년 정치 입문을 돕는 학습 커뮤니티 플랫폼 '뉴웨이즈 메이트', 지역구 의원과 청년 유권자를 연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웨이즈 피드' 론칭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3명 배출
- 2024년 오프라인 정치 입문 집중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뉴웨이즈 부트캠프' 론칭



시즌 1 펠로우

홍윤희 무의 이사장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직장생활과 무의 활동을
병행할 수 없게 됐을 때,
펠로우 사업을 믿고 퇴사해
활동가로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는 딸을 둔 엄마로서, 2015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 경로 지도
제작

이듬해(2016) 협동조합 무의를 설립해 직장 생활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지도 제작 프로젝트 병행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무의의 수익증가 규모

7.4배

무의 활동의 영향으로
휠체어 접근성 관련
내부 규정을 보완한 민간 기업 수

5곳

- 2023년 공익법단체 두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서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 매장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촉구하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진행
 - * 2024년 서울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 * 2024년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의 협력 아래 서울시 전역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 확장
- 2024년 협동조합 무의에서 **사단법인 무의**로 법인 형태 전환
- 2025년 현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과 함께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 진행
 - * 2027년까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276개역에 이동약자를 위한
환승 경로 안내표지 설치 예정



시즌 2 펠로우

김미연·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공동대표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 덕분에

펠로우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면
해양동물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국내에 남는 대신 해외 유학을 떠났을 것이다.

대학원에서 선후배로 만나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18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설립

2018년 10~12월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목표 금액의 2배(2,078만원) 달성

펠로우 선정 전 대비 현재
연구 용역 프로젝트 수익 증가 규모

22.4배

펠로우 선정 후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수
(2021.9~2025. 5 기준)

12건

-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 프로젝트, 시민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바다거북의 생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진행
- 고래류 생태 연구자들이 한국에서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장학생 채용(누적 3명)
- 낙시줄에 얽힌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를 발견해 돌고래
보호단체들과 함께 국내 첫 능동 구조(해변에 밀려온
해양동물을 구조하는 ‘수동 구조’와 달리 사고를 당한 동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해 구조하는 활동) 시도
- 해양풍력발전소 건설, 선박관광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남방큰돌고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서식지 실태조사,
서명운동 등 진행
 -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2.36km²를 국내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나에게 브라이언 펠로우 사업은 000이다”

펠로우 선정의 공인효과는 아이돌 연습생이었다가 기획사에 발탁돼서 데뷔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시즌 1 펠로우 |

펠로우로 선정됐다는 건
‘국가대표 사회혁신가’로 인정 받은 셈이다.

|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시즌 2 펠로우 |

1년에 최소 두 번은 전국을 돌며 이주민들을 만난다.

펠로우 사업 덕분에 일반 고속버스 대신
우등을 타고, KTX를 탔다.

|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시즌 2 펠로우 |

펠로우 사업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언제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다.

|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시즌 1 펠로우 |





발행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기획·제작	트리플라잇
디자인	백나영(작업실틈새)
발행일	2025년